

슬라맛 하리 나탈(Merry Christmas~)

2023년 한 해 동안 저희의 동역자로 함께 사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올해도 인도네시아 반등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손을 뻗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이곳의 성탄절 분위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탓인지 매우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에 있게 될 대선에 강성 이슬람 지도자가 당선되지 않도록 교회들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인도네시아와 저희 사역을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9 번째 기도편지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갇혔다가 풀려난 동역자



동역자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사역하는 한 마을의 동역자 뱁(Mr.) 아만이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갇힌 지 7개월 만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만 목사님의 석방을 위한 헌금을 해주셔서 빨리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분이 사는 마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회복을 이루고, 다시금 그 마을에서 저희의 방과후 사역이 재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그곳의 아이들을 다시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갈 차비가 없어서 못 가는 가정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에는 아직 교회에 갈 차비가 없어서 교회에 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저희의 소중한 사역입니다. 그중의 한 가정은 가장과 장남이 천식을 앓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 먹을 것조차 없는 가정입니다. 마침 한국에 있는 한 장로님께서 그 딱한 사정을 아시고 그 가정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시고, 가장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그 가정은 소망 가운데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이 그 가정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선교는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이 추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파가 질밥(히잡)을 벗고 당당하게 살도록



저희 부부가 다시 만난 시파는 2022년에 저희에게서 양육을 받고 세례까지 받은 친구입니다. 그런 시파가 머리에 질밥을 쓴 이유는 그의 어머니의 명령 때문입니다. 시파는 세례를 받았지만, 부모의 핍박과 생활비가 없어서 아주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대학생이었지만, 부모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 세 학기나 등록금을 내지 못했고,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의 지갑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파는 생계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카페에서 비정기적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시파에게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갓 세례를 받은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공격한다,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너를 삼키고자 한다, 그러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시파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그가 다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동역자님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자칫하면 다시 잃어버린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시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희는 다시 그 아이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시파가 거둬난 새사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질밥을 벗고도 당당한 그리스도인 자매로 성장하도록 꼭 중보해 주십시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거의 언제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선긋의 현장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의 성도이자 현지 동역자인 뱁 부디는 대장암 수술 이후 27번의 항암 치료와 25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후 CT 스캔을 통해 다행히도 암 세포가 몸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수술 받은 그 부위에 남아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를 만나 하나님의 치유의 권세에 관한 여러 성경 말씀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힘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전한대로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부디에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 5:15)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디를 온전히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역자님께서 기도로 하나님의 이 선한 역사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 연락처: +62-813-9488-8002, 070-8246-3990 카톡 ID: kalebpark / parksangjun222@gmail.com
- 후원은행 및 계좌 번호: 하나은행 990-090819-187 (문의 02-443-0883, 한국지피선교회 재정간사)



계속 진행 중인 방과 후 마을 사역과 한국어 사역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 제자 양육과 성경공부 사역, 빈민 아동 대상 1 대 1 결연 사역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한국어 사역 가운데 한 영혼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여러 사람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는 목마른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계속 다가가게 하소서.
2. 2024년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의 은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3. 평생 살아오던 집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채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시게 된 이숙영 M 어머니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천국의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하소서.

2023년 성탄절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박상준 이숙영 선교사 올림

- 저희 사역 소식과 기도제목을 공유하는 밴드(BAND)/카카오톡 채널에 가입을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